

녹용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양관리

김종영 / (주)신원 대표이사

수사슴은 종족으로의 활용뿐만 아니라 녹용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한다. 따라서 종족으로서의 번식력과 녹용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양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녹용은 단백질이 주성분으로서 약 40% 전후의 함량을 나타낸다. 중국에서의 사양실험에 의하면 단백질 수준이 녹용 생산량에 큰 영향을 나타내어 3~4년생 수사슴의 경우 사료중 단백질 함량이 약 21~23%는 되어야 녹용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다른 외국의 예에서도 고단백질 사료급여가 녹용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어 녹용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슴은 사료급여량과 가소화 단백질 수준을 개선하면 체중과 녹용생산에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므로 사양관리 중 특히 단백질 급여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단백질 급여량이 충분치 못하면 녹용성장이 늦어지고 녹용의 털이 조잡하며 골화(骨化)가 빨리 진행되는 등 질적·양적인 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3월에서 7월 사이가 녹용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인데 수사슴은 식욕이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왕성하여 녹용성장이 빨라진다. 꽃사슴의 경우 녹용은 하루에 약 0.5~1cm, 무게는 약 20~25g정도 성장하며, 레드디어는 약1~1.5cm와 약35~40g, 엘크는 약 1.3~1.7cm와 100~125g 정도씩의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녹용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백질과 광물질 및 비타민 등이 충분히 들어 있는사슴 전용사료 급여는 필수적이다.

한편 수사슴은 계절에 따라 체질, 생리, 신진대사 등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수사슴의 사양은 다양한 계절별 생산성과 영양수요의 특성을 기초로 녹용생산전기, 녹용생산기, 번식기 및 회복기로 나누어 각각의 사양단계에 알맞은 사양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다.

○ 녹용생산 전기 사양관리

이 시기는 수사슴이 번식기와 겨울동안의 감소된 체중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왕성한 녹용성장을 위해 체내에서 준비과정을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녹용성장기 못지 않게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의 사양관리에 의해 낙각 시기가 영향을 받게 된다. 광주기가 길어지는 하지까지 충분한 녹용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낙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녹용성장전기의 사양이 좋아야 한다.

이 시기에는 사슴의 식욕도 향상되어 사료 채식량이 늘어가므로 급여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주며 영양수준을 높여 회복기 동안에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체중을 빨리 되돌리고 영양상태를 좋게 하여 환모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식욕이 증가한다고 해서 갑자기 과식을 하게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으므로 사료 급여량의 증가는 서서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녹용성장기의 사양관리

일반적으로 꽃사슴은 4월부터 낙각이 이루어지면서 녹용이 자라기 시작한다. 대개 낙각 후 60일 전후에 절각을 하는데 낙각 후 절각시까지 녹용이 왕성하게 자라게 된다.

그러나 사슴의 개체,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녹용의 성장기간과 생산량이 다르게 된다. 어린 사슴의 경우는 낙각이 느리고 그만큼 생산량도 적은 편이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생산량은 늘어난다. 녹용은 동지에서 하지에 이르는, 일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자라며 이 일장은 녹용성장 및 각화를 조절하는 내분비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녹용의 성장은 광주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녹용성장기에는 사료중 단백질 함량이 19~20%정도 함유된 사료를 급여하되 부족되는 수치만큼이라도 루핀이나 알팔파로 보충을 하여 주어야하며, 광물질이 풍부한 조사료나 농후사료를 적절히 섞어 급여하여야 좋은 녹용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녹용성장기 수사슴에게 너무 과다한 단백질 급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농후사료와 섬유질 조사료를 적절히 혼합된 사료 급여를 통해서 영양균형을 이루어야 효과적인 사양관리가 가능해진다(조사료 : 농후사료 = 5 : 5 또는

6 : 4).

중국에서는 녹용성장기 동안의 높은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시키며 경제적인 사료급여를 위해 요소나 어분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요소는 농후사료의 약 1.0% 정도를 사용하며 꽃사슴에게는 1일 약 15~20g 정도가 급여된다. 어분의 경우는 농후사료량의 약 10%정도를 혼합하여 급여하는데 일당 약 150~200g 정도에 해당하게 된다. 요소와 어분의 급여효과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녹용의 생산량이 30~50g 정도 많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녹용성장기에는 사슴에게 주기적으로 소금을 비롯한 광물질을 급여하여 광물질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미네랄블록과 같은 종합 광물질 보충제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사슴의 녹용성장전기와 녹용성장기에는 단백질 함량 17~19%의 조사료 및 농후사료가 적절히 배합된 사료를 건물기준으로 체중의 3.0%이상을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수사슴의 사료급여는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보통 꽃사슴 성록의 경우 90kg을 기준으로 할 때 건물량으로 2.7kg 이상의 사료가 급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용성장기에는 수분함량이 높은 사료를 비교적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즙질 사료나 청초와 같은 사료도 적절히 급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관령 사슴목장

천혜의 깨끗한 자연 환경

30년 전통의 대관령 사슴목장에서는 질 좋은 녹용, 우수한 사슴이 생산됩니다!

대관령 사슴목장

대표: 엄 홍 기

TEL : 033-644-7628

FAX : 033-644-7976

H·P : 011-362-7626



철저한 사양관리